2025년 9월

인사이트 제공:

IDC

데이터 및 AI 영향력 보고서:

신뢰가 이끄는 AI 시대

s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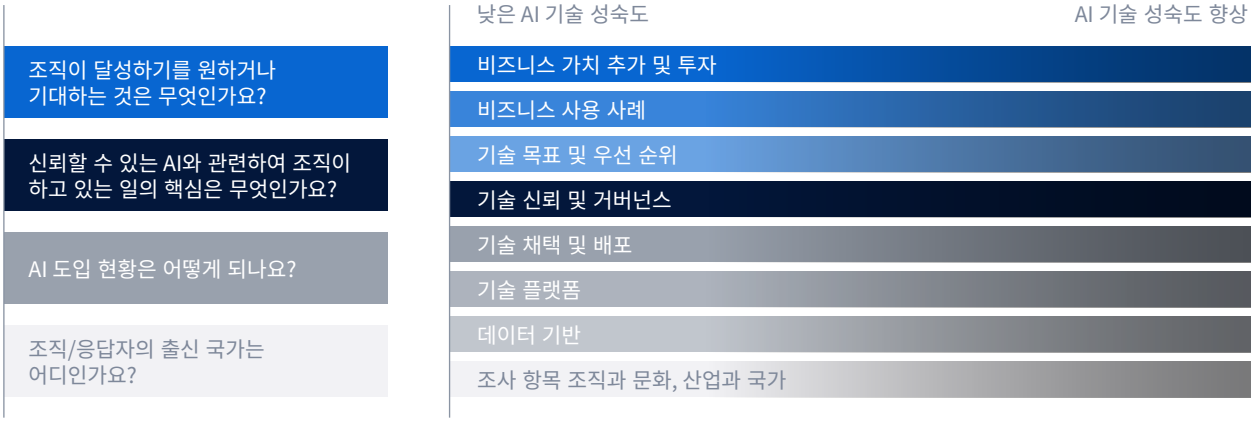
방법론

이 리서치는 북미, 중남미,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2,375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글로벌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설문조사에는 IT 전문가와 현업 부서 리더가 균형 있게 참여하여 기술 및 비즈니스 부서의 관점을 모두 제공했습니다. 특히 은행, 보험, 생명과학, 정부 기관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제조, 소매, 통신 등의 산업에서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설문지는 조직이 AI 도입에 접근하는 방식과 AI 이니셔티브에 신뢰를 쌓는 방법을 조사하기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비즈니스 가치, 사용 사례,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배포 관행 및 데이터 기반을 포함한 광범위한 차원을 조사했습니다. AI 성숙도는 초기 단계의 노력부터 구현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 전반에서 평가되어 비교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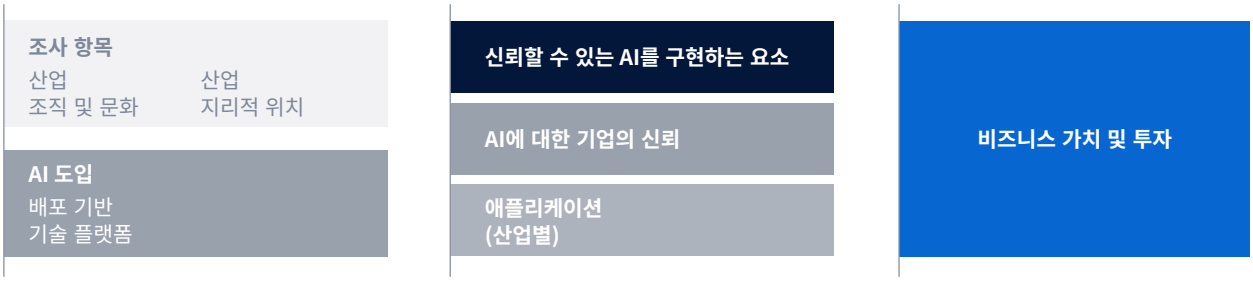
이 페이지의 첫 번째 그래픽은 주요 리서치 질문을 요약하여 전략적, 기술적, 조직적 계층에서 AI 성숙도를 평가한 방법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래픽은 리서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5가지 핵심 주제인 조직적 맥락, AI 도입, 신뢰할 수 있는 AI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 AI에 대한 기업의 신뢰, 산업별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구성한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이 보고서에 제시된 조사 결과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리서치 질문



리서치 프레임워크

전 세계 2,375명의 산업별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샘플



소개

규칙 기반 시스템과 신경망의 영역이었던 AI 시장은 이제 생성형 AI(이하 'GenAI')의 등장으로 활력을 되찾고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의 물결은 AI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현재 65%가 AI 사용 중, 32%가 향후 12개월 내 도입 계획) 기업과 개인이 AI 기능을 인식하고 신뢰하며 활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식 기반 업무를 자동화하고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는 능력을 갖춘 GenAI는 가시성과 활용도 모두에서 기존 AI를 빠르게 추월했습니다(81% 대 66%). 불과 몇 년 만에 GenAI는 호기심의 대상에서 핵심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AI 환경은 GenAI를 넘어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동적인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에이전틱 AI(현재 52% 채택)는 자동화와 지능의 경계를 더욱 확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자 AI는 계산의 한계로 인해 이전에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기술은 아직 개발 단계에 있지만, 그 잠재력은 실험과 혁신을 열망하는 의사 결정권자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61%는 프로세스 효율성 향상을, 32%만이 비용 절감을 추구)

새로운 요구 사항에 따른 발전에는 책임이 수반됩니다. AI 시스템이 더욱 자율적이고 중요한 프로세스에 깊이 통합됨에 따라 데이터 기반(16%는 사일로화 또는 임시 저장)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품질, 다양성, 거버넌스는 AI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스마트 데이터 전략은 이점을 실현하고 위험을 완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 변화에서 핵심은 신뢰입니다. 두 가지 요소가 영향을 끼칩니다.

1. 학습 데이터, 사용 패턴, 관찰 결과 등의 요인에 따라 사용자가 AI를 신뢰하는 정도(78%가 AI를 완전히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2. 설명 가능성 및 투명성 기능을 포함한 기술 자체의 고유한 신뢰성과 강력한 거버넌스 관행(40%만이 AI에 대해 높거나 아주 높은 신뢰도를 보임).

AI 시장이 성숙해짐에 따라 조직은 신뢰의 두 가지 차원을 모두 해결하여 채택을 촉진하고 인공지능의 혁신적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변화를 추적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AI의 발전을 정의하는 주요 지표를 소개하고, 시장을 재편하는 힘을 밝히며, 신뢰가 어떻게 영향력의 기반으로 부상하고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이 보고서는 구현 기술, 구현 전략 및 진화하는 책임 표준을 검토함으로써 AI의 현재 위치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AI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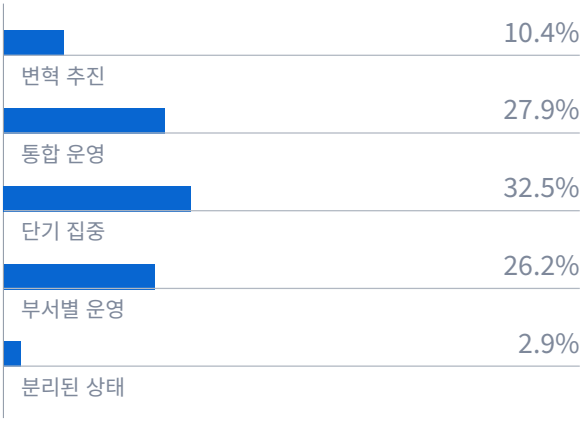
> "윤리적이고 장기적인 AI 채택은 신뢰에 의해 촉진되기 때문에 AI는 선택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 신뢰할 수 있는 AI와 그 중요성에 대한 질문을 받은 설문조사 응답자

데이터 및 AI의 글로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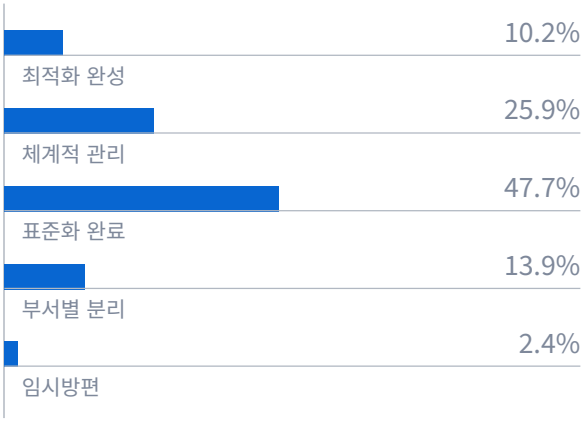
사용중인 AI 기술

응답자 비율

AI의 현재 상태



데이터 인프라의 현재 상태



AI의 현재 상태

분리된 상태. AI 이니셔티브가 당장의 문제 해결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회사의 전략과 연계되지 않습니다.

부서별 운영. AI 이니셔티브가 특정 부서나 사업부(LOB) 차원에서 시작되며, 전사적인 전략과 어느 정도 연결점을 가집니다.

단기 집중. AI 이니셔티브가 조직 차원에서 추진되지만 대부분 단기적 성과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통합 운영. 전사적으로 지속적인 AI 혁신이 실제 업무 운영과 고객/서비스 경험에 통합되어 이루어집니다.

변혁 추진. 장기 투자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AI를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서비스 경험을 창출함으로써 시장과 고객을 변화시키는 것이 조직의 핵심 전략입니다.

데이터 인프라의 현재 상태

임시방편. 데이터 구조가 체계화되지 않았고 공식적인 프로세스나 거버넌스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부서별로 분산되어 일관성 없게 관리되며, 문제 발생 시에만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부서별 분리. 기본적인 체계와 프로세스가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파편화되어 있고 일관성과 거버넌스에 빈틈이 있습니다.

표준화 완료. 명확한 거버넌스, 표준, 운영 모델이 확립되어 있지만, 실제 준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체계적 관리. 데이터 구조 관리 프로세스가 조직 전체에 통합되어 있으며,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반영한 지속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적화 완성. 데이터 구조가 완전히 최적화되어 있으며, KPI 같은 성과 지표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 리서치의 핵심 지표

조직이 AI를 이용하고 AI로부터 혜택을 얻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이 보고서는 세 가지 핵심 지표를 소개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AI 지수**는 AI 시스템이 책임감 있게 구축되고 신뢰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관행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영향력 지수**는 조직이 AI 투자로부터 얻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측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뢰의 딜레마**라는 개념은 사용자가 느끼는 신뢰와 AI가 주는 신뢰성이 일치하지 않는 지점을 강조하여, 활용되지 않은 AI의 잠재력이나 높아진 위험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측정의 결과로 AI가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조직이 사용자들이 가지는 신뢰를 실제 성과와 일치시키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AI 지수

신뢰할 수 있는 AI 지수는 조직이 AI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고 윤리적이며 투명하고 신뢰할 만한 것으로 만드는 관행, 기술 및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얼마나 투자했는지를 측정합니다. 여기에는 데이터 거버넌스, 책임감 있는 AI, 규정 준수, 설명 가능성 및 위험 관리가 포함됩니다.

영향력 지수

영향력 지수는 AI 투자를 통해 실현된 비즈니스 가치와 성과를 파악하는 정량적 지표입니다. 생산성, 혁신, 고객 경험, 운영 효율성 및 재무 수익과 같은 요소를 종합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AI로 인한 실질적인 혜택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뢰성과 영향력의 상호 작용

이 표는 AI가 가지는 신뢰성과 영향력이 국가별로 어떻게 다르게 분류되는지 보여줍니다. 아일랜드와 호주 및 뉴질랜드는 높은 신뢰도와 강력한 영향력을 결합하여 거버넌스와 책임감 있는 AI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영향력은 높지만 기반이 취약하여 단기적인 이익을 얻는 동시에 장기적인 좌절의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는 신뢰성에 투자하지만 이를 영향력으로 전환하지 못해 역량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패턴은 지속 가능한 혜택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자가 AI에 대해 가지는 신뢰와 실제 신뢰도를 일치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국가	신뢰할 수 있는 AI	영향
호주 및 뉴질랜드	3.01	3.53
베네룩스	2.86	2.9
브라질	3.35	2.84
캐나다	3.52	3.01
중국	2.67	2.51
프랑스	3.35	3.35
독일	2.88	2.8
인도	2.96	3.33
아일랜드	3.26	4.06
이탈리아	2.73	3.01
일본	2.92	3.01
멕시코	3.55	3.36
북유럽	2.72	2.64
폴란드	2.76	2.9
사우디아라비아	2.86	2.84
남아프리카 공화국	2.72	3.24
한국	2.82	2.64
스페인	3	3.44
태국,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	2.93	3.3
튀르키예	3.76	3.3
아랍에미리트	2.28	2.6
영국	3.1	2.93
미국	3.1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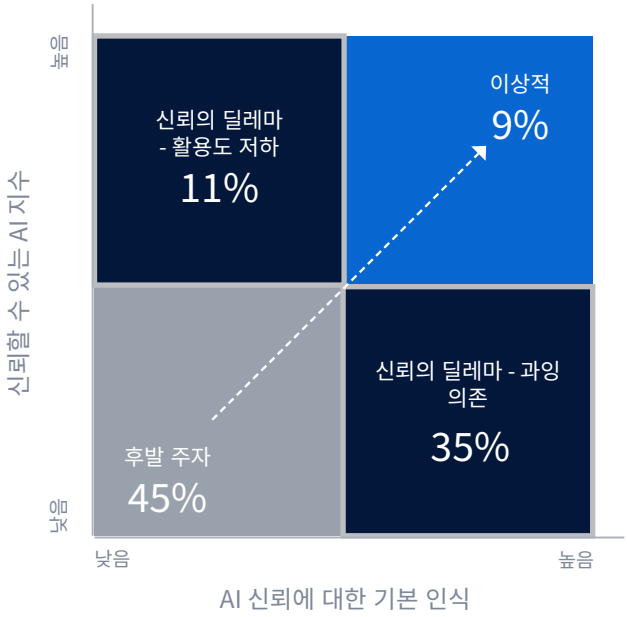
이 페이지의 도표는 AI의 신뢰도와 조직이 자체적으로 보고한 영향력에 대한 국가별 보기를 제공합니다. 두 가지 모두 0~5점 척도로 측정되며 5점이 최고입니다.

신뢰의 딜레마

아래 도표는 AI 시스템에 대해 사용자가 가지는 신뢰와 AI의 실제 신뢰성 간의 관계를 도식화하여 '신뢰의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모든 지역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이러한 불일치는 효과적인 AI 도입에 대한 중요한 장벽을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조직이 이러한 불일치를 경험하며, 이상적인 균형을 달성하는 조직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두 가지 위험이 나타납니다. 사용자가 가지는 신뢰가 낮게 유지될 때 신뢰할 만한 시스템의 과소 활용과 사용자가 가지는 신뢰가 불균형적으로 높을 때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의존입니다. 이 문제는 특히 생성형 AI에서 심각한데, 급속한 열기가 거버넌스와 데이터 품질을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신뢰의 딜레마

이 매트릭스는 명확한 범주를 제시하지만, AI에 대한 신뢰와 신뢰성은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보고서는 2x2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지만, 수준 간 변화는 이분법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유념해야 합니다.



신뢰의 딜레마는 전 세계 조직의 거의 절반(46%)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인 글로벌 문제입니다. 아시아 태평양과 북미 지역에서 이 문제가 약간 더 두드러지는데, 47%의 조직이 AI에 대한 신뢰와 실제 시스템 신뢰성 간의 불일치를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중동, 터키, 아프리카 지역과 중남미는 45%로 약간 나은 편이지만 여전히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규제 감독이 더 강력한 유럽에서도 46%의 조직이 여전히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숙련된 인재 개발, 강력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AI 기술에 대해 조직이 가지는 신뢰가 AI가 가지는 입증 가능한 신뢰성과 무결성을 바탕으로 확고히 다져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조직이 AI의 영향력과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이러한 신뢰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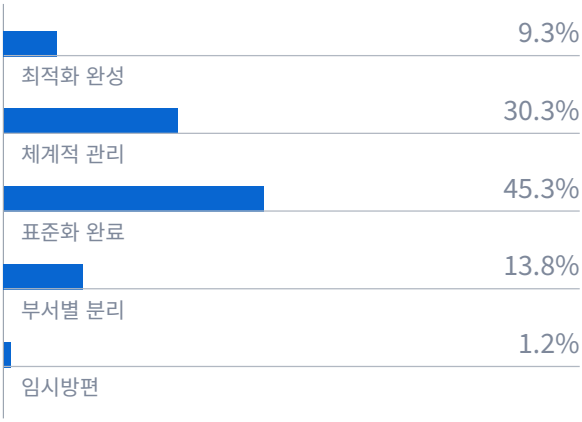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데이터 및 AI 현황

사용 중인 AI 기술

응답자 비율

AI의 현재 상태

데이터 인프라의 현재 상태



첫 번째 도표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광범위한 응용 분야를 통해 기업 워크플로우에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는 생성형 AI의 급속한 성장을 보여줍니다. 기존 AI는 신용 위험, 사기 탐지, 프로세스 최적화와 같은 영역에서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 사용은 더 전문화되어 데이터 사이언스 팀 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GenAI는 일상적인 상호작용까지 확장되어 기업 전반에 걸친 도입과 가시성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기술이 고립된 파일럿 프로젝트를 넘어 확장될 때 나타납니다. 에이전틱 AI는 SaaS 제공업체들이 에이전틱 기능을 내장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반면, 양자 AI는 현재까지 제한적인 사용 사례만을 가진 채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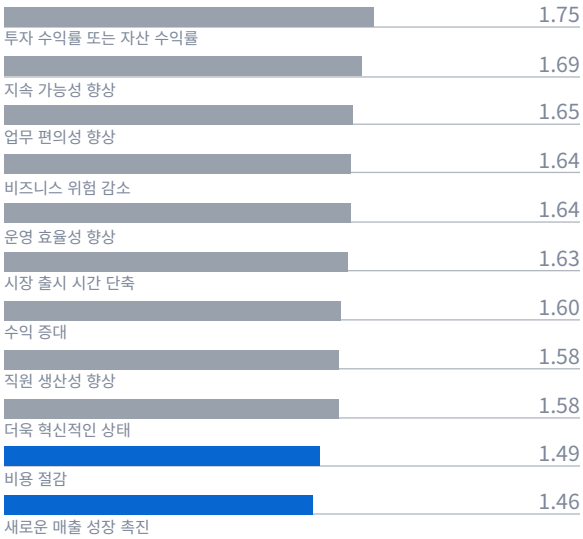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도입 모멘텀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직들의 거의 절반이 표준화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데이터 인프라에 대한 강력한 투자를 바탕으로 이미 AI를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데이터 성숙도는 글로벌 벤치마크를 상회하고 있어, AI 기반 기업 구축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 주요 결과

전략적 AI 도입: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누락된 연결 고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많은 조직들이 여전히 비용 절감과 생산성을 AI 도입의 주요 목표로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극적 관점은 종종 미미한 수익만을 가져다주며 낮은 수준의 신뢰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단기적이고 점진적인 AI 접근 방식을 시사합니다. 반면, 비즈니스 회복탄력성 강화, 지속가능성 향상, 운영 민첩성 개선, 신뢰성을 전략에 내재화하는 데 AI를 적용하는 조직들은 첨부된 도표에서 보여주듯이 훨씬 더 큰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지역 내 기업들이 효율성 중심의 목표를 넘어서서 장기적 가치 창출을 위한 변혁적 수단으로 AI를 받아들일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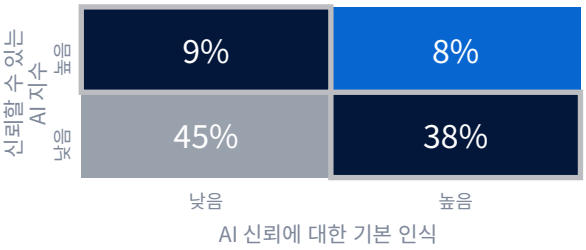
AI의 주요 비즈니스 목표



AI에 대한 신뢰의 딜레마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 신뢰의 딜레마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 단계인 사용자가 가지는 AI에 대한 신뢰의 평가와 신뢰할 수 있는 AI 구축을 위한 투자를 일치시킨 조직은 단 8%에 불과합니다. 한편, 조직의 45%는 AI에 대한 불신을 표명하지만 아직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38%는 AI 관련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책임감 있는 AI 관행에 투자하지 않는 위험한 범주에 속하며, 이는 향후 심각한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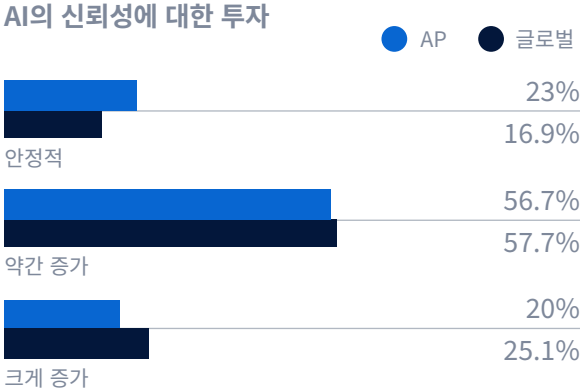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신뢰의 딜레마



자율성 이전의 신뢰: 에이전틱 AI의 기반 구축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업들은 AI가 가지는 신뢰성에 대한 투자 측면에서 전 세계의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약 77%가 특히 에이전틱 AI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주목할 만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내 기업들이 초기 단계에서도 AI가 가지는 신뢰성을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 하여 새로운 AI 기술을 안전하게 확장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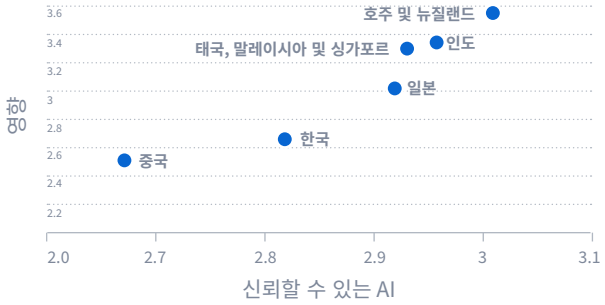
AI의 신뢰성에 대한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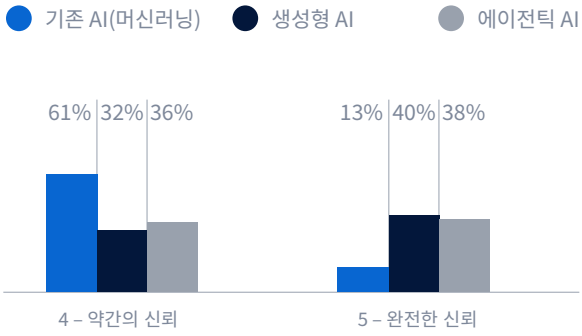
아시아 태평양 지역 -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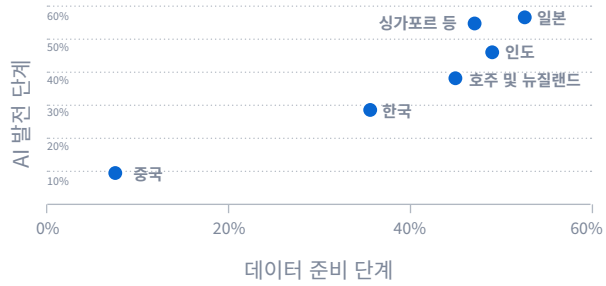
신뢰할 수 있는 AI로 더 큰 비즈니스 가치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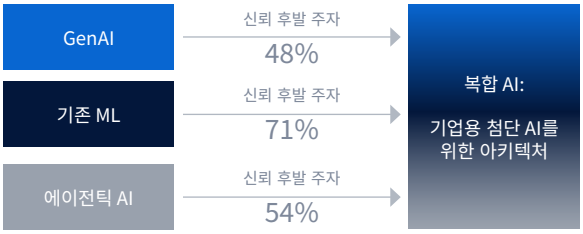
AI의 주요 비즈니스 목표



다른 AI 기술에 대한 신뢰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나타나는 양상은 글로벌 트렌드와 매우 유사합니다. 거버넌스와 AI가 가지는 신뢰성에 대한 투자 증가는 높은 AI 영향력과 비즈니스 가치와도 강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상대로 호주와 뉴질랜드, 일본 같은 선진 시장과 인도 같은 고성장 시장에서는 책임감 있는 AI 관행에 대한 명확한 집중으로 의미 있는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AI 도입에서 선두주자이지만, AI가 가지는 신뢰성에 대해 집중을 덜함으로써 안전성 확보보다는 빠른 실행을 선호하는 문화적 성향을 반영합니다. 중국은 선점 우위 확보를 강하게 강조하여 즉각적인 영향을 극대화하려는 빠른 AI 도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속도 중심 접근이 반드시 지속 가능한 장기적 가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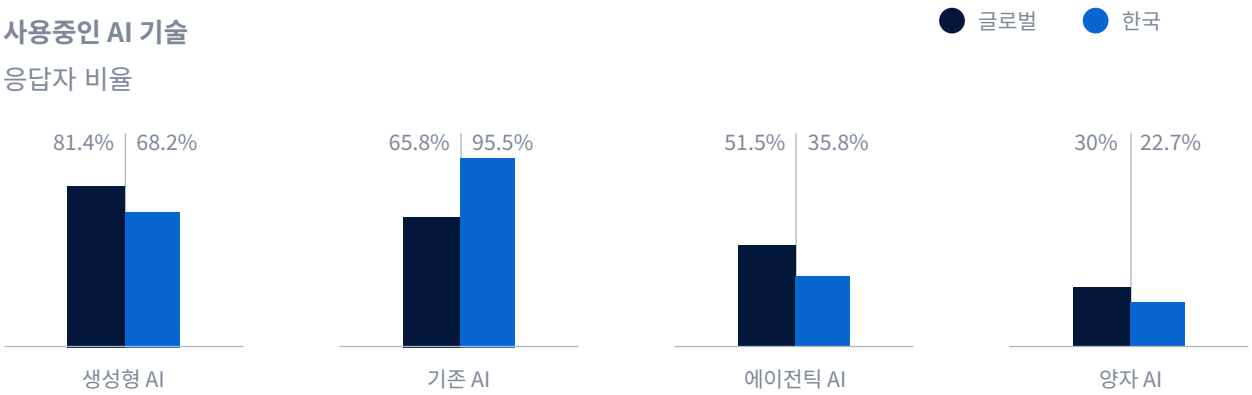
중요한 것은 AI 성공이 데이터 준비도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데이터 준비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비교적 미미한 AI 성공 결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AI 성공과 데이터 준비도 모두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고 수준을 보이며, 견고한 데이터 인프라와 거버넌스가 AI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존 머신러닝, 생성형 AI, 에이전틱 AI에 대한 신뢰 인식에서 주목할 점은 가장 새로운 참가자인 생성형 AI가 아시아 태평양에서도 더 오래된 기술들보다 현재 더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에이전틱 AI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며, GenAI보다 먼저 등장했지만 자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모멘텀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AI의 미래는 하이브리드 또는 복합적 성격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구현에서는 단일 유형의 AI 기술에만 의존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AI가 계속 공존할 것입니다. 이러한 융합이 현재 기존 머신러닝과 생성형 AI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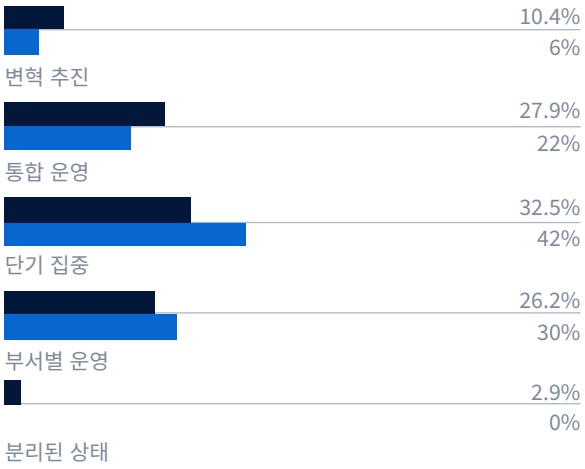
한국 조사 결과

사용중인 AI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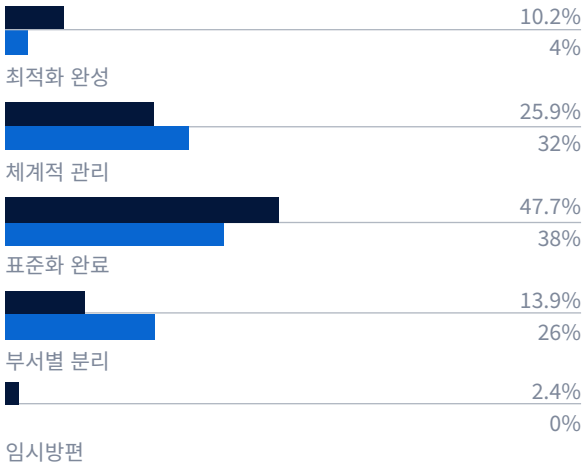
응답자 비율



AI의 현재 상태



데이터 인프라의 현재 상태



한국 기업들의 AI 도입은 AI 기술의 시간적 흐름을 따릅니다. 가장 오래된 기존 머신러닝이 가장 널리 채택되고, 그 다음이 GenAI, 에이전틱 AI, 양자 AI 순입니다. 이는 최근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GenAI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임을 보여주는 글로벌 데이터 및 기타 지역 데이터와는 대조적인 패턴입니다.

오래된 기술이 더 널리 보급되고 새로운 기술이 덜 보급되는 한국의 도입 패턴은 20세기 후반의 급속한 경제 발전기에 비해 한국 조직이 기술 변화에 대해 더 보수적이고 회의적으로 변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AI 산업 활성화에 대한 열의와는 대조적으로, 이제 민간 부문이 공공 이니셔티브의 영향을 덜 받고 전략적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신중하면서도 독립적인 AI 접근 방식을 고려할 때, 한국의 데이터 준비도는 향후 도입에 대한 유망한 지표를 제시합니다. 한국 조직의 36%가 고급 데이터 인프라(체계적 관리 또는 최적화 완성)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평균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플랫폼을 현대화한 한국 조직은 향후 몇 년 동안 한국의 AI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양자 AI 도입률(22.7%)은 가장 낮은 편에 속하지만, 네트워크 보안 및 첨단 R&D와 같은 분야에서 양자 컴퓨팅 자체가 활발하게 테스트되고 AI와 융합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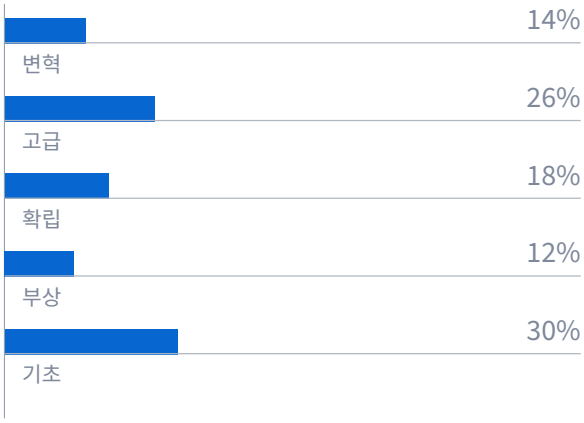
한국 - 주요 결과

신뢰할 수 있는 AI의 양극화

한국 기업들은 AI가 가지는 신뢰성에 대한 접근 방식이 나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한국은 지수에서 거의 양극화된 분포를 보이며, 기업의 56%가 AI가 가지는 신뢰성 지수에서 기초 수준(30%) 또는 고급 수준(26%)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일반적으로 5개 수준 각각에 균등하게 분포되는 글로벌 데이터 및 기타 지역 데이터와는 대조됩니다.

이러한 양극화는 국내 AI 도입의 양극화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일부 유명 대기업들은 비즈니스 혁신을 위해 AI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개방으로 AI 산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기능적(30%) 또는 단기 집중(42%) 단계의 AI 도입에 머물러 있어, 포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포함하는 장기적이고 전사적인 AI 로드맵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AI 지수 -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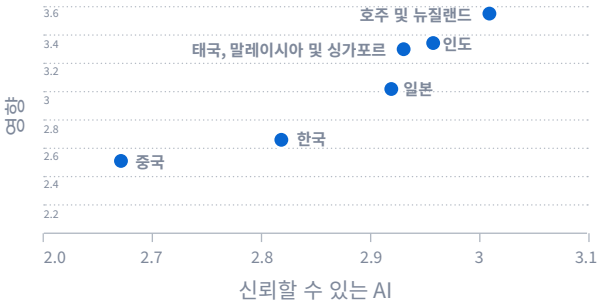


AI 영향력을 위한 데이터 기반 AI 거버넌스에 더 많은 투자의 필요성

한국은 AI가 가지는 신뢰성과 AI 비즈니스 영향력 측면에서 후발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주요 구현 영역에서 글로벌 평균보다 집중도가 낮습니다.

- AI 평가 기준 구축(-12%)
- AI 거버넌스 구축(-16%)
- 책임감 있는 AI 정책 개발(-10%)
- 규정 준수 및 보안 보장(-21%)

반면 한국 기업들은 AI 구현을 위한 데이터 아키텍처에 글로벌 평균보다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15%).



데이터 아키텍처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기업 AI의 중요한 기반이지만, AI가 가지는 신뢰성 솔루션에 대한 집중 부족은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AI를 더욱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한국 기업들은 기업 AI 구현 맥락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성화하여 AI 평가 기준 설계 및 책임감 있는 AI 정책 개발과 같은 영역에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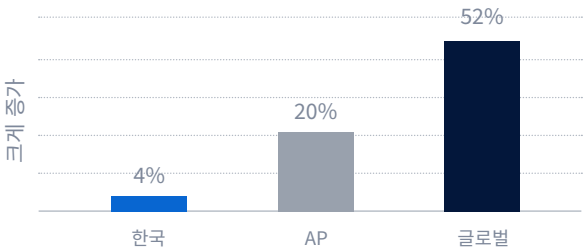
한국 - 주요 결과

에이전틱 준비도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평균과 비슷한 수준의 데이터 준비도를 보이고 있지만, 에이전틱 AI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AI가 가지는 신뢰성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낮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AI가 가지는 신뢰성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릴 계획이 있는 한국 기업들은 단 4%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격차는 글로벌 평균(52%)에 비해 20% 낮은 한국의 에이전틱 AI 도입률(32%)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에이전틱 AI를 둘러싼 신뢰 문제에 대한 이러한 인식 부족은 도입을 더욱 저해할 것입니다.

에이전틱 AI에 대응하는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투자



에이전틱 AI는 기업 환경에서 GenAI를 적용하는 사실상의 글로벌 표준으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 AI 사용 사례가 에이전틱 AI와 결합되면서, 자율적 추론 과정과 AI 에이전트에 부여된 확장된 접근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보안 및 투명성 과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즉시 도입하기보다는 기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목표라 하더라도, 최소한 이러한 기업 AI 기술의 새로운 최전선에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AI 목표의 초기 단계

한국 기업들에게 비즈니스 위험 감소는 AI의 최우선 목표이며, 이는 글로벌 벤치마크와 일치하는 우선순위입니다. GenAI와 관련된 비즈니스 위험은 여러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GenAI의 부정확성이 브랜드 평판을 손상시키는 신뢰 관련 위협이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강박적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한국은 비즈니스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AI를 활용하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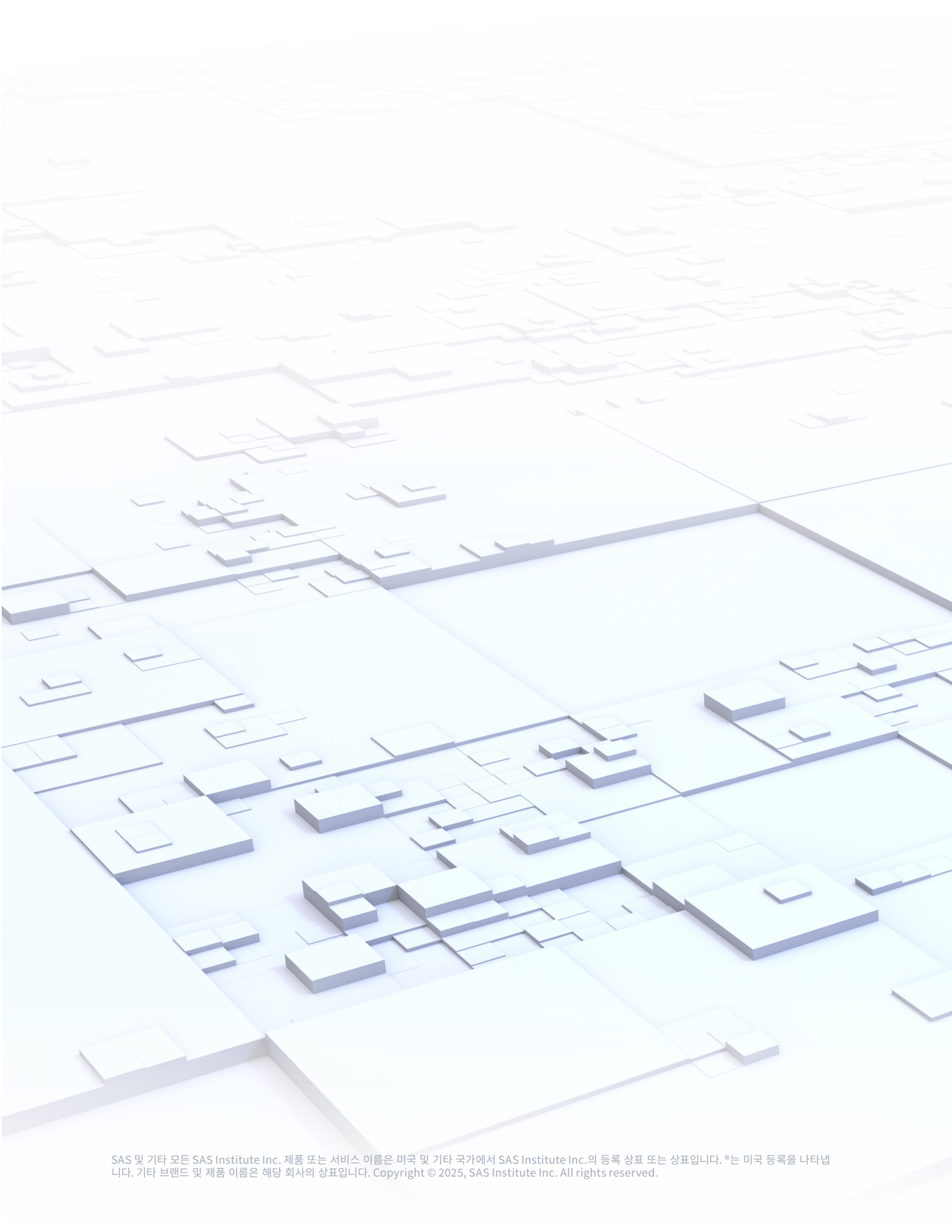
상위 5가지 AI 목표 - 한국

비즈니스 위험 감소	56%
업무 편의성 향상	52%
수익 증대	46%
비용 절감	44%
운영 효율성 향상	38%

하지만 비용 절감과 수익 증대도 한국 기업들의 상위 5개 AI 목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용 절감에 대한 강한 우선순위는 초기 단계 AI 도입의 특징입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72%가 AI 성숙도의 초기 단계(기능적 또는 단기 집중)에 있다는 사실과 일치합니다. AI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기업들은 단기적 비용 절감에 대한 좁은 관점을 넘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목표를 AI 기술과 연계하는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중요 용어에 대한 용어집

AI 거버넌스	AI 시스템의 책임감 있는 개발, 배포, 감독을 안내하는 정책, 프로세스, 통제 체계로, AI가 윤리적이고 투명하며 신뢰할 수 있고 조직적·규제적 표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합니다.
에이전틱 AI	최소한의 인간 개입으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를 통해 협업하는 자율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에이전트들로 구성된 인공지능 시스템의 한 클래스로 메모리, 추론, 동적 도구 사용을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적응하고 행동합니다.
AI 영향력 지수	생산성, 혁신, 고객 경험, 운영 효율성, 재무 수익률과 같은 성과를 종합하여 AI가 전략적·운영적 목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원하는지 보여주는 정량적 벤치마크로 AI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반영합니다.
AI 성숙도	조직이 AI를 전략, 운영, 문화에 얼마나 깊이 통합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입니다. 성숙도는 초기 실험 단계부터 완전한 변혁 단계까지 다양합니다.
데이터 인프라 성숙도	조직의 데이터 아키텍처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관리되며 통합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로, 임시적이고 고립된 관행부터 완전히 최적화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시스템까지의 범위를 포함합니다.
생성형 AI	기존 데이터로 훈련된 모델을 사용하여 프롬프트에 대해 새로운 결과물로 응답함으로써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또는 코드와 같은 독창적인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입니다.
책임감 있는 AI	AI가 윤리적이고 투명하며 사회적·조직적 가치와 일치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관행과 기술의 집합체입니다.
기존(예측) AI	구조화된 환경에서 예측, 분류 또는 최적화와 같은 좁게 정의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규칙 기반 또는 통계적 모델을 사용하는 인공지능의 한 형태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기보다는 인간이 정의한 입력과 출력에 의존합니다.
신뢰의 딜레마	AI에 대한 인식된 신뢰와 실제 신뢰성 간의 불일치를 말합니다. 이는 신뢰할 만한 시스템의 과소 사용이나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I에 대한 신뢰	사용자 경험, 인식, 조직적 맥락에 의해 형성되는, AI에 의존하려는 주관적 의지입니다. 시스템에 신뢰할 만한 기반이 부족하더라도 신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AI	AI 시스템의 신뢰성, 무결성, 투명성에 대한 객관적 측정입니다. 기술이 신뢰를 정당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구축되고 관리되는지를 반영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AI 지수	조직이 AI 시스템의 윤리성, 투명성, 신뢰성을 보장하고 사회적,·규제적 기대치에 부합하도록 하는 관행, 기술,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얼마나 광범위하게 도입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양자 AI	중첩과 얽힘과 같은 양자 현상을 활용하여 고차원 시스템에서 학습, 최적화, 시뮬레이션을 가속화하는 양자 컴퓨팅과 인공지능을 융합한 기술입니다.



SAS 및 기타 모든 SAS Institute Inc. 제품 또는 서비스 이름은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SAS Institute Inc.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는 미국 등록을 나타냅니다. 기타 브랜드 및 제품 이름은 해당 회사의 상표입니다. Copyright © 2025, SAS Institute Inc. All rights reserved.